

협회소식

협회장동정



- 10월 25일 : 가평군 연합 낙우회 제3회 낙농인의 날 행사
- 10월 28일 : 2005축산물 경진대회 및 전시회

- 11월 7일 : 미국 웰드와이드싸이어사 외 3개 주요 A센타 사장단 접견
- 11월 9일 : 종돈업경영인회 회의 및 종돈수출 협의회 회의 개최
- 11월 16일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개원 현판식 참석
- 11월 23일 : 2005년도 제4차 축단협대표자회의 참석
- 11월 24일 ~ 29일 : 일본 축산업 연수시찰

제10회 농업인의 날, 회원농가 훈장 및 표창 수상

11월 11일 제10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백55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축산인들은 본회 회원인 신덕현(화성시 흥원목장) 대표의 동탑산업훈장 수상을 비롯해 18명이 정부로부터 포장과 표창을 수상했다. 신덕현 대표의 이번 수상은 이웃들에게 낙농기술을 전수하는 '기술나눔미'로 평가받으며 92년부터 1만 5천명의 교육생이 흥원목장 교육장을 이용해 새로운 기술을 터득할 정도로 선진 낙농기술의 배움터를 운영하고 낙농전문강사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낙농교육 선두주자의 역할을 담당해온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도 김수만(제주시 해광축

산) 대표가 국무총리표창을 박충남(영암군 보림목장) 대표가 농림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2005한국홀스타인품평회 결과 평가회 개최



본회에서는 성황리에 개최된 2005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 대한 평가회를 지난 11월 17일 축산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행사당시 착유장비 및 진료체계 구축 미비 등의 미흡한 부분과 행사전반에 관한 폭넓은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미국 3개 주요 A센타 사장단 내방



지난 11월 7일 World wide sires사 부사장 Mike Rakes, Accelerated Genetics사 CEO Roger L. Ripley, 및 Select Sires사 사장 등 미국

의 3개 주요 시멘타 사장단이 본회를 방문하고, 젓소의 유전자원과 개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관한 토의를 가지고, 향후 한국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로 했다.

종돈개량부, (주)가야육종에서 직원 눈높이교육 실시



종돈개량부에서는 10월 20~21일 양일간에 걸쳐 직원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눈높이 교육 장소는 경남 고성에 위치한 (주)가야육종으로, 현재 GGP종돈장으로서 세계적인 육종기법과 과학적인 품질관리로 우수한 종돈을 개발, 보급하는 과학양돈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가야육종 허정래 대표이사로부터 가야육종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를 들은 후, 바로 직원들의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가야육종 돼지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초음파 측정 및 판독으로 돼지를 보정 후에, 검정직원들 모두 돌아가면서 A mode와 B mode로 각각 측정하면서 개개인의 검정기록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눈높이 교육을 마친 후, 가야육종 직원들과 함께 족구시합을 벌여, 친목을 도모하였다. 서울로 돌아오기 전, 경남 사천에 위치한 금지축산을 방문하여 정종

기 사장으로부터 최근 종돈업계 현황에 관해 종돈부 직원들과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중국 상해양돈협회 국장 및 양돈인 본회 방문



지난 10월 31일 중국의 상해양돈협회 국장과 현지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일행이 본 협회(회장 박순용)를 방문하였다. 이들 일행은 종돈개량부 김윤식 부장에게 우리나라 종돈산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협회의 혈통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으며, 샘플로 보여준 혈통카드의 개체성적(종돈의 능력)을 세심히 살펴보는 등 한국 종돈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윤식 부장은 한국의 종돈의 경우 수년간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양돈선진국의 종돈 능력과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말하며, 한·중간의 종돈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이 수출입 체계의 구축과 한국종돈을 체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방문단 일행에게 전하였다.

업계소식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목장맞춤 티엠알 우수목장의 날 행사 개최



(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는 지난 11월 10일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태명목장(대표:이명근 사장)에서 “낙농 우수목장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요즘 티엠알 시장의 새 역사를 선언한 퓨리나가 목장맞춤 티엠알을 적용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태명목장, 영광목장(대표:김웅기 사장), 주은목장(대표:김금주 사장)의 성적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충주를 포함한 충청도 일원과 경기도 각처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목장 맞춤 티엠알의 우수한 실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사육가들이 참여하였다. 충주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축우판매부장 이선복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시장상황, 목장맞춤티엠알 소개, 목장성적 소개, 태명목장 사장님의 소감을 발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소개된 세 목장은 지난 6월부터 퓨리나 목장맞춤티엠알을 적용하고 있으며 무더웠던 올 여름을 지나면서도 유량증가를 비롯한 번식 개선 등 우군 성적 향상을 보였다. 특히 행사가 열린 태명목장의 성적을 살펴보면 자가 티엠알에서 목장맞춤 티엠

알로 교체하였으며, 그 후 5개월간 평균유량 35.5kg을 기록하였고 올 상반기와 비교하여 두 당 평균 3.5kg의 유량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국내에는 2004년 현재 등록된 티엠알 업체가 전국 103개가 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티엠알 사료가 연간 100만톤 넘을 정도로 목장에 적용하는 구입 티엠알의 이용은 증가해 왔고,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적인 증가는 있으나 아직까지 목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티엠알은 찾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주)선진, 포브스紙 최우수 중소기업에 선정

축산 식품 전문기업인 (주)선진은 지난 8월 2년 연속 미국경제전문지 포브스 아시아가 발표한 ‘최우수 중소기업 200(200 Best under a billion)’에 선정되었다. 포브스지는 매출액 10억 달러 이하의 아시아·태평양 중소기업 중 매출, 영업이익, 시장가치, 자산규모 등을 종합 환산, 200대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여기에 (주)선진 등 7개 한국 기업이 포함되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범권 선진 대표이사는 “지난해 미국 외 지역 100대 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다시 200대 기업에 선정되었다”며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통해 3년 연속 최우수 중소기업 선정에 도전하겠다”고 말하였다.

ET바이오텍, 가족개량센터 설립

이티바이오텍 영농조합(대표 강태양)과 수정란이식센터(소장 정영길박사)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소재 웨딩코리아에서 전국의 인공수정사와 수의사 등 관련인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개량센터 개소식을 거행했다.

이 센터는 천안시 풍세면에 총면적 1천7백평 부지에 연구소와 고능력 한우와 젓소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3동이 있으며, 수정란 생산을 위한 채란실과 수정란 미세조작 장치와 수정란 성감별 장치 등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연구인력은 박사 1명, 석사 2명, 수의사 1명, 수정사 2명, 농가 2명 등이며 이밖에 국내외 연구인력 5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정란혈통증명서와 고급육 유전인자를 가졌다고 판단된 수정란을 공급하거나 고능력의 젓소에서 수정란을 채란하여 수정란을 공급하는 일 또한 용이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청미원(주), 연암대학에 2005년도 2학기 장학금 전달



청미원 주식회사 윤동노 대표이사는 천안연암대학에 방문하여 재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각

각 125만원씩을 전달하고 미래 축산 발전에 기여하는 학도가 될 것을 당부했다. 대학장실에서 거행된 장학금 전달식은 청미원 임직원 이종승 이사 박해익 이사 박신한 대리외 대학측에서는 학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했다. 수혜 장학생은 김진섭(축산1), 김성태(축산1), 윤일원(동물보호2), 윤형구(외식산업1) 학생이며 2005년도 (주)청미원 장학금 지급은 2회의 걸쳐 500만원씩 총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되었다.

서울사료, 김제공장 HACCP 인증

— 전 직원의 하나된 위생·안전성 의식의 결과 — 서울사료 김제공장(공정장 백종운)이 지난 11월 15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았다. “서울사료는 김제공장 HACCP 인증 획득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식탁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슬로건으로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꾸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1년여 기간동안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위생적인 사료생산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각 공정의 설비 및 작업환경의 청결도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원료, 제조과정, 제품 수송에 이르기까지 요인별 위해 요소 분석을 바탕으로 CCP 모니터링 및 개선, 검증관리 등을 대대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료생산 공급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사료의 자랑인 축산과학연구소 중앙분석센터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HACCP의 안전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시스템 검증 및 개선이 가능해졌으며, 각종 생산 및 관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사료는 김제공장 HACCP 인증이 인천공장에 이어 두번째로 인증 받았고 천안, 경주 등의 공장들도 빠른 시일내에 HACCP 인증 획득을 목표로 개선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주)중앙진테크, 미국 종모우 마살 후대 종모우 브래들리 출시

미국 단일 최대 종모우 회사인 ABS Global 사의 한국 독점 수입 판매원인 (주) 중앙진테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브래들리 (29HO10808 BRADLEY) 미국 33등 등재 종모우 정액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종모우는 우리 낙농가에게도 익숙한 미국의 우수 종모우 마살 (7HO5375 MARA-THON BW MARSHALL-ET)의 아들 종모우로서, 지난 수 차례의 미국 발표 기록에서 10등 이내에 등재되어 오고 있다고 밝히고, 본 마살은 현재에도 3개 체형 형질이 공히 +2.00을 넘는 우수한 형질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우수 종모우와는 달리, 생산 쪽에서도 미국 상위 10% 안에 드는 아주 우수한 종모우 이라는 설명이다. 본 브래들리는 능력은 체형(외모 +2.51, 유방 +2.11, 지체 +1.70) 및 생산(유량 +1,493, 단백질 +30, 지방 +49)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외모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품평회용으로 사용시 큰 장점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본 브래들리 (29HO10808 BRADLEY)로 이전에 마살을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 개량 낙농가의 육구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중앙진테크는 미국 ABS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 15일 발표된 종모우 검증 기록중 당사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종모우가 미국 100등 내에 20두가 등재된 것으로 발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100두의 종모우 중에서 20%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이며, 단일 종모우 회사로서는 최다 종모우기록을 보유하였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모우들로서는 5등(제트 스트림), 33등(브래들리), 이미 많은 낙농가가 접한 10등(망고), 53등(프로스펙트), 73등(젼머) 종고가 브랜드로 판매될 68등(징글스) 등이 있으며, 특히, 보급형 정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헤스(30등 등재) 등이 등재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문의를 (주)중앙진테크 영업부 또는 지역별 지소장들에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연락처 : <http://www.jagenetec.co.kr>, 02-587-1388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불가” 결의

‘한우사육농가들의 동의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절대 안 된다’

미산쇠고기의 수입재개 임박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10일 대전샤또그레이스 호텔에서 긴급회장단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 수입재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한우사육농가들의 동의 없이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산쇠고기의 수입재개는 있을 수 없다며 현재 상태로는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결의 했다. 한우협회는 이날 이밖에도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제 법제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협회 유통감시단 활성화를 통해 쇠고기의 투명한 유통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자조금 거출을 확대와 한우인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기금모금 운동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소비자초청 농가견학 행사 개최

생산단계에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농장을 직접 방문해 우리 축산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행사가 열려 주목되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소비촉진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교육원(원장 전성자)소속의 축산물 유통감시원과 임원 등 40여명을 한우농가에 초청해 방문 견학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경기도 포천의 한창목장(대표 김인필)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가족들이 기대이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C&C Food System의 김건수 대표와 현대마트(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이재현 대표가 동행하여 한우의 유통과정과 부위별 용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백운한우 시식을 겸한 점심식사를 가졌다.

시식에 참가한 시찰단은 지금까지 한우라고 생각하고 먹어본 쇠고기와 너무나 큰 맛의 차이를 느낀다고 말해 우리 쇠고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했다.

소 등급판정수수료 2천원으로 인상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 이하 등판소)는 지난 11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등급판정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의결했다. 의결된 수수료 인상내역은 소 2천원(1두 기준, 기존 1천6백원), 돼지 4백원(1두 기준, 기존 300원), 계란 5만개당 5만원(기존 10만개당 5만원), 5만개 이상은 개당 1원(기존 10만개 이상 개당 0.5원), 그리고, 소 부분육이 박스당 300원이다. 이로써 등판소의 결내용은 농림부를 통해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생산자단체, 규제혁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 후 행정자치부가 결과를 고시하게 된다.

등급판정수수료 인상고시는 12월 중순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 인상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수수료에 따라 등급판정이 이뤄지게 된다.

전국한우협회, 대법원 '갈비판결' 관련 규탄성명 발표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업계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우협회는 지난 10일 최근 있었던 갈비판결과 미산쇠고기 수입재개 움직임에 대해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협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살이 붙어있는 갈비뼈에 일반정육을 이어 붙여도 갈비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반상식을 ‘뛰어넘는 기발한 발상’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협회는 이 같은 판결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먹거리로 장난을 치더라도 적법하다면 죄가 없다는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안 그래도 무질서한 쇠고기 유통시장에 둔갑판매와 부정유통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꼴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진주축협 가축시장 확장 개장

진주축협(조합장 정영규)은 지난 13일 정영석 진주시장과 농협경남지역본부 이성호 축산팀장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반성면에 위치한 가축시장의 확장개장식을 가졌다. 이번에 확장 개장한 진주축협 가축시장은 1천2백여평의 부지에 현대화된 시설로 새 단장하고 매달 13일에 하절기에는 오전 9시, 동절기에는 10시에 개장을 하며 현재까지 20회의 개장으로 평균 출장두수는 1백여두로 99%의 매매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모든 입찰우의 예정가격산정은 가축시장 중계인 2명, 경매 담당직원 4명이 사전 예정 가격을 산정하여 제시한 후 최고 입찰자에게 낙찰된다. 확장 개장식을 가진 이날 총 출장두수는 1백19두로 1백17두가 낙찰됐으며 이날 최고가는 암송아지 3백43만원, 수송아지 2백72만원으로 평균시세보다 20만원 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축협, 박광수 조합장 취임식

충주축협은 지난 11월 16일 이화에식장에서 한창희 충주시장, 권영관 충북도의회 의장, 홍성권 충북축협운영협의회장을 비롯한 도내 축협장, 박경재 충북축산위생연구소장, 지현호 농협충주지부장, 이석재 전 조합장과 조합 임원, 대의원, 축산계장, 조합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대 박광수 조합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박광수 조합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한 사람을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로 다시 한 번 당선시켜 주신 조합원에게 감사드린다”며 “대내외적으로 농업 및 축산현황은 산적된 과제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모두가 인내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수원축협, 종합업적평가 1위

수원축협(조합장 우용식)이 2005년도 농협중앙회 3/4분기 종합업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수원축협은 상반기 1위에 이어 3/4분기에서도 1위를 차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축협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이번 평가에서 수원축협은 판매성장률 외 43개 항목에서 8백87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유통혁신부문과 신용사업부문에 있어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축협은 예수금은 연간 목표 5천3백여억원 대비 9월말 현재 5천1백92억원으로 98%를 달성했으며 대출금은 4천5백여억원 목표에 4천2백69여억원으로 96%, 판매사업은 3백억원 목표에 3백억원으로 100%를 달성했으며 군납 유통사업은 2백10억원 목표에 2백81여억원으로 134%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소식

미국 농업부 발표, 내년 옥수수 생산량 감소

미국 농업부(USDA)가 10월 12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전망에 따르면, 2005/06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4.0% 감소한 19억 5456만톤, 소비량은 0.2% 증가한 19억 9934만톤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2005/06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681만톤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두생산량은 2억 2087만톤으로 전년보다 3.5% 증가. 대두박 생산량은 1억 4614만톤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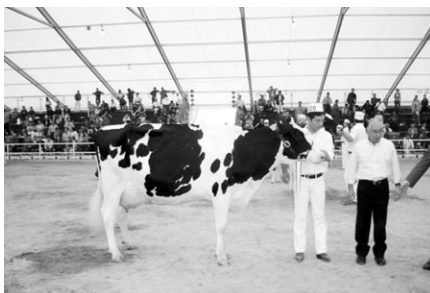
2005/06년도 옥수수는 미국 등 주요 옥수수 생산국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6억 8257만톤,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1.4% 감소한 1억 1188만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두는 기말재고량이 4741만톤으로 전망돼 전년대비 10.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두박은 기말재고량이 전년대비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홀스타인 공진회 그랜드 챔피언 위용

지난 11월 5일 일본 혼슈우도찌끼현에서 개최된「2005 일본 홀스타인공진회」에서 최고 영예의 그랜드챔피언은 북해도 후쿠야목장 후쿠야 시데또대표가 출품한 2산차 등록우 「엘 무렘 스카이치프 사니-ET」가 거머쥐었다.

전국 일본 홀스타인공진회는 5년에 한번을 주기로 열리는데 이번 공진회에서 최고 젖소로 선발된 「엘 무렘 스카이치프 사니-ET」의 능력은 3백5일보정 유량이 1만1천2백93kg, 유지율



3.4%, 단백질을 3.1%, 무지고형분 8.8%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대만, 낙농특구 체험목장으로 인기

대만의 최대 낙농특구인 팔웅낙농구가 2002년 대만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래 체험관광목장으로 변신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4년 뉴질랜드에서 2백40두의 젖소를 도입해 처음으로 목장을 시작한 이 지역은 현재 83여명의 낙농가가 1만2천두의 젖소를 기르며 1일 1백50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2년전부터 체험목장으로 변신해 방문객들에게 목가적인 생활과 젖소의 착유방법, 목장내 자전거 타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유를 활용한 각종 빵, 아이스크림, 요거트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인근 폐쇄된 철도를 이용한 열차타기 프로그램도 운영해 일일 평균 1천여명의 방문객들이 목장을 찾고 있다는 것.

아일랜드, 쿼터제 따라 하루 4개씩 목장폐업

아일랜드의 낙농가들이 우유생산 쿼터제가 도입된 지난 1983년 이래 1일 4개 목장씩 폐업이

되었다고 최근 아일랜드 워터포드에서 개최된 낙농가회의에서 관계전문가들이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3년 아일랜드 내 낙농가수는 8만6천3백명이었는데 지난해 12월 현재 낙농가수는 2만3천767명으로 매년 약 1천4백여명, 즉 하루에 4개 목장씩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아일랜드 낙농이 향후 10년간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 중에는 낙농경영의 재편, 쿼터의 구매, 가족구성원 또는 이웃목장과와의 협력, 유기낙농, 공동착유, 1일 1회 착유, 부업갖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논의될 수 있으며 목장규모화, 시장접근성, 기술혁신, 비용절감에 대한 낙농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도, 낙농조합 중국 유제품 수출 증가 예상

인도의 최대 낙농조합인 '아몰'은 내년도 대 중국 유제품 수출량이 2배정도 늘어나고 북경, 상해지역 소규모 유업체에 아이스크림과 요거트용으로 수출하던 탈지분유외에 버터와 치즈 수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중국유제품 생산량은 매년 20~25%가 늘어난 2천 4백만톤에 달하고 있는데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 유제품 수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요거트와 발효유 소비량은 최근 2년간 매년 40%씩 성장하여 '04년에 82만1천톤이 소비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미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산 유제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조사료시장 동향 - 가격 인상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미국내 운송료가 인상되고 해상운임도 10월1일부터 대폭 인상되었으며, 미국내 우유가격인상에 따라 자국내 자체 소비되는 알팔파 및 티모시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수출량이 감소하여 국제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서남부 지역인 캘리포니아의 말 사육두수가 젖소 사육두수를 넘어섬에 따라 티모시와 버뮤다의 소비가 증가하여 버뮤다 가격이 클라인 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전반적인 미국 조사료 소비확대 및 국제유가 인상 그리고 원화강세가 국내 조사료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 · N · E · W · S · N · E · W · S · N · E · W · S · N · E · W · S · N · E · W · S